



II 국내정보

대구~포항 고속도 연말 개통

대구와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올 연말 개통된다. 이에 따라대구에서 포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돼 경북 내륙의 물동량 수송은 물론 동해안 관광산업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내륙지방의 동맥역할 기대경북 내륙지방과 항구를 잇는 대구~포항 고속도로는 장차 노선이 연장되고, 중앙고속도로와도 연결돼 내륙지방의 동맥역할을 하게 된다.올해 말 개통되는 고속도로는 대구 동구 경부고속도로 도동 분기점에서 포항시 연일읍 학전리 연일분기점까지 68.42km. 지난 1998년 4월 착공, 1조 9,632억원을 들여 6년8개월 여만에 완공되는 것이다. 향후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영천 화산 분기점에서 기계분기점까지는 왕복 6차로로, 나머지는 4차로로 건설중이다. 험난한 지형 때문에 8개의 터널과 36개의 장대교, 47개의 소규모 교량이 들어서고, 청통, 화남, 기계 등 3개 인터체인지와 와촌, 청통, 영천 등 3개 휴게소가 설치된다. 여기에 기계분기점에서 흥해 인터체인지까지 23.9km는 2011년까지 완공예정인 포항 신항만 개발에 맞춰 추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노선구상단계에 있지만 이 고속도로가 중앙고속도로와도 연결되면 내륙지방 곳곳을 연결하는 주요 운송축이 돼 지역개발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대구는 '항만가진 내륙도시'로 대구~포항 고속도로 개통은 대구의 위상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고속도로로 풍부한 잠재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는 40분이면 닿는 항만을 가지 내륙도시가 되는 것. 그만큼 국가기간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소요시간 40분은 현재 국도를 이용할 때의 절반이지만, 대구~포항 국도가 명절은 물론 주말과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체증을 빚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운행시간은 지금을 3분의1 수준으로 단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대구는 물류비 절감으로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부상한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등 관련산업과 포항철강산업의 연계발전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덕, 울진 등 동해안지역의 관광산업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해수욕장과 백암온천, 성류굴, 불영계곡 등 많은 관

광자원이 있지만 교통 때문에 소외되던 울진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 가량 단축되면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구~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연간 2,600억원의 운행비 절감이 기대되며 2005년에는 하루 평균 4만4,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교량 유지관리 매뉴얼 발간

- 건설교통부(도로국)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강교량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교량 유지관리 매뉴얼을 발간기로 하였다
- 80년대 초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강교는 현재 전국 도로상 교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치한지도 20여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강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강교는 재료특성상 부식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지금까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페인트칠을 하는 등 관행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부식을 관리 해왔다
- 그러나, 본 매뉴얼이 발간되면 앞으로는 부식의 진행정도, 발생부위 등을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이에따라 페인트칠 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강교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평택~용인·증평~괴산 구간 등 올 국도 59개구간 4차선 확장

올해 평택~용인, 증평~괴산 등 전국 59개 구간 535.2km의 국도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말 새로 개통되는 주요 국도 구간은 국도 45호선 평택~용인(37.6km), 국도 34호선 증평~괴산(23.3km), 국도 2호선 장흥~장동~보성(23km), 국도 24호선 상북~언양(7.6km), 국도 42호선 내사~이천(12km), 국도 27호선 운암~구이(9.4km), 국도 25호선 해평~도개(10.8km) 등이다. 국도 45호선 평택~용인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과 용인시 마평동을 잇는 간선도로로 이 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용인, 평택, 안성지역의 교통량을 흡수해 지역 교통난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남 장흥군 장흥읍과 보성군 미령면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 장흥~장동~보성구간이 확장 개통되면 국도 2호선 목포에서 광양까지 전 구간 4차로 확장공사가 완료돼 대불, 여천, 광양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

해지게 된다. 이 구간의 확장 개통으로 보성 녹차밭, 제암산 자연휴양림, 울포 해수온천탕, 낙안 민속마을 등 위락시설과 주변 관광지 접근성도 크게 높아져 지역 관광개발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도 34호선 증평~괴산 구간은 충북 괴산과 중부고속도로 증평IC를 연결,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괴산군 공단지역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와 지내리를 잇는 국도 24호선 상북~언양 구간은 울산항 및 울산공단 산업물동량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교통혼잡비용 연간 22조1천억원

매년 경부고속철도 1개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교통혼잡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02년 한해 전국 도로 교통혼잡비용이 22조1천356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7%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해 18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1.2개의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교통혼잡비용은 교통정체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와 교통혼잡으로 정체되는 경우를 비교해 유류소모비, 시간손실비용,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손실비용 등의 차이를 합산한 것이다.

도시지역 교통혼잡비용이 12조9천843억원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 9조1천513억원(41.3%) 보다 많았다.

도시지역 교통혼잡비용은 서울 5조3천100억원(40.9%), 부산 3조476억원(23.5%), 인천 1조6천24억원(12.3%), 대구 9천252억원(7.1%), 광주 8천769억원(6.8%), 대전 8천740억원(6.7%), 울산 3천483억원(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4조8천863억원(37.6%), 소형화물차 2조2천271억원(17.2%), 대형버스 2조2천8억원(16.9%), 택시 1조4천840억원(11.4%), 소형버스 1조3천989억원(10.8%), 대형화물차 7천872억원(6.1%) 등으로 파악됐다.

인구 1인당 혼잡비용이 가장 큰 도시는 부산으로 연간 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 1대당 혼잡비용의 경우도 부산이 연간 1대당 3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은 도로별로 국도 5조7천350억원(62.6%), 고속도로 2조651억원(22.6%), 지방도 1조3천512억원(14.8%) 순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도로법이 금년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접도구역 매수청구제 도입 및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된 내용을 금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다.
- 새로 도입되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매수청구제도는 건물의 신·개축등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접도구역내 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청구할 때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 현 고속도로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 또한, 화물차량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량 측정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최근에 많은 과적차량이 차량의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고의로 과적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이러한 고의적 측정방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기업형 포장마차 등에 대하여는 통행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도로의 중복건설등이 계획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버스관리시스템 7월초 개통

버스운행 관리에 첨단 IT 기술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버스관리시스템(BMS) 사업인 서울시 BMS 프로젝트 본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됨에 따라 오는 7월초부터는 서울시 전체 버스의 운행상황을 인터넷·휴대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말 우선공사 구간인 49개 노선 1429대의 버스에 차량단말기를 설치하고 시험서비스에 들어간

데 이어, 이달부터 서울시내 나머지 3602대를 대상으로 하는 단말기 설치와 시스템 개발에 착수, 4월까지 설치 및 개발을 마무리한 후 6월말까지 2달간 성능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4월말에는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전체 버스의 운행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BMS센터가 구축돼 서버·네트워크장비 등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서울시 BMS 프로젝트는 △버스운행 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해 인터넷·휴대폰·PDA·ARS 등으로 시민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종합사령실' 구축 △운전자에게 앞·뒷차의 배차간격과 도로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내 단말기' 설치 △버스회사에 버스위치·배차간격·버스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운전자에 운행사항을 지시할 수 있는 버스 운영관리단말기' 설치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교통 소통에 직접 영향을 받는 동부간선로·천호대로·청계천로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1429대에 먼저 단말기가 설치돼 복원사업에 따른 영향을 줄이도록 했다. 오는 4월말 구축이 완료되는 버스종합사령실은 종로구 수송동 소방방재본부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서울시 BMS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정보시스템(BIS)이 버스 도착시간 등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인 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시나 버스회사가 시스템을 통해 버스 배차간격 조정·관리 등을 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류장 안내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BMS는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신교통카드 도입 등과 함께 서울시 신교통시스템 도입사업의 큰 축을 이룬다"며 "BMS가 개통되고 신교통카드가 본격 이용되는 7월부터는 서울시의 교통체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고속도 서울~춘천구간 3월이전 착공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 구간이 빠르면 3월 이전에 착공되고 춘천~양양 구간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7일 춘천시 등에 따르면 민자로 추진되는 서울~춘천 구간의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이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돼 3월 이전 공사착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1.414km에 달하는 이 구간에는 화도 JCT(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와 춘천 JCT(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등 2개의 JCT와 8개의 IC가 들어서며 20개 터널과 17개 교량이 건설된다. 국비로 추진되는 춘천~양양 구간도 올 해부터 2005년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춘천~동홍천 구간은 이미 실

시설계가 끝난 상태여서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연장 74.1km인 춘천~양양 구간은 올 해부터 17개 구간에 17개 업체가 공구별로 투입돼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道公, 전주~광양 고속도로 착공

도로공사는 올해 전주~광양간 16개 공구를 비롯 25건의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를 발주기로 했다.

이중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연말에 발주하고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신설공사는 오는 7월부터 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를 포함한 올해 발주계획을 마련, 사업별로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의 경우 모두 25건을 발주기로 했으며 이들 25건의 추정공사금액은 3조6천여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설사업의 경우 전주~광양간을 비롯 주문진~속초,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공사가 포함됐고 확장은 성서~옥포간 확장공사 1공구이다.

도공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16개 공구, 주문진~속초는 7개 공구로 나눠 발주하고 여주~양평과 성서~옥포 확장공사는 각각 1개 공구를 발주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우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연장 117.79km에 총 2조4천500억원이 투입되며 16개 공구 모두 오는 12월쯤 발주될 예정이다.

특히 이 공사에는 16개 공구별 공사금액이 모두 1천억원을 넘어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주문진~속초간은 44.32km에 8천9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설계작업이 완료된 4개 공구는 오는 7월에 발주되고 3개 공구는 12월경 발주된다.

도공은 이와 함께 1천680억원 규모의 여주~양평 2공구 공사를 연내 발주기로 했으며 인·허가 추진중인 성서~옥포간 확장 1공구 공사도 인·허가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이다.

여주~양평 2공구 공사의 고속도로 연장은 13.80km이며 성서~옥포간 확장 1공구 공사는 구간내 3.86km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1천24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도공은 이 같은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와 함께 지사 신축공사와 전기공사 등 20건의 부대공사를 발주기로 했다.

부대공사에는 모두 67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004년 건설교통부 정책연구 용역과제 확정

- 건설교통부는 2004년에 수행할 정책연구 용역과제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등 38건(25억원)을 확정하였다.
- 금번 정책연구과제 선정은 국토연구원 김재영 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연구과제평가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03년 연구용역 성과와 '04년 연구과제 내용 심사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 '종합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국 주무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 한편, 건설교통부는 금번에 확정된 정책연구과제는 1/4분기내 발주하여 용역 성과품이 연내에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04년 정책연구용역과제

〈건설경제심의관 : 3건 200백만원〉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촉진방안 80백만원
- 산업설비(플랜트) 기술기준제정 연구 70백만원
- 기후변화협약대비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과분석 50백만원

〈정보화담당관 : 1건 100백만원〉

- SOC 정보화 통합환경구축을 위한 정보전략 연구 100백만원

〈수송물류심의관 : 4건 270백만원〉

-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80백만원
- 수도권 물류시설 수급분석 및 확충방안 80백만원
- 철도노선의 명칭·등급·번호 등의 지정방안에 관한 연구 70백만원

- 화물특성별 수송안정화방안 및 비상시 수송대책 수립연구 40백만원

〈항공정책심의관 : 2건 140백만원〉

- 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연구 90백만원
- 주요국의 항공교통체계 비교연구 50백만원

〈국토정책국 : 4건 290백만원〉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100백만원
- 지역개발사업 평가지침 및 정보화 연구용역 60백만원
-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 토지수급방안 연구 60백만원
- 건설교통분야 교과서 체계화 연구 70백만원

〈토지국 : 2건 100백만원〉

-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30백만원
- 외국인 토지제도 발전방안 70백만원

〈주택국 : 5건 240백만원〉

- 주거급여 등 임대료 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 40백만원
- 주택건설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70백만원
- 예방적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주택가격 예측모형 연구 60백만원
- 노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주거복지 증진방안 연구 40백만원
-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30백만원

〈도시국 : 3건 220백만원〉

- 도시용지 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100백만원
- 기반시설부담구역 모델 개발 60백만원
-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60백만원

〈육상교통국 : 5건 360백만원〉

- 자동차 전국번호판 디자인 등 질적개선방안 연구 100백만원

- 도시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의 선택 기준연구 60백만원
- 온라인 중고차 매매알선업 신설 등 중고차매매업제도에 관한 연구 100백만원
- 도시철도건설 투자재원조달의 적정성 평가기준연구 50백만원
-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표준화 연구 50백만원

〈기술안전국 : 1건 70백만원〉

-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품질성능 평가에 관한 제도연구 70백만원

〈수자원국 : 1건 100백만원〉

-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 100백만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 1건 100백만원〉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100백만원

〈광역정책국 : 2건 150백만원〉

-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90백만원
- 수도권 대중교통이용정보시스템의 평가 및 활용도 제고방안 60백만원

〈신도시기획단 : 2건 70백만원〉

- 신도시 경관형성계획 기준 마련 40백만원
- 블록형 단독주택지 활성화방안 마련 30백만원

〈항공안전본부 : 2건 90백만원〉

- 항공기 안전성 인증기술기준 정책개발 50백만원
- 공항안전 및 환경정책 개발연구 40백만원

도로터널 방재시스템 개선

- 건설교통부는 도로상 중규모터널(500이상-1,000M미만)에 대하여 현지 관리사무소를 대신할 수 있는 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키로 하였다.

- 그동안 1,000m이상 장대터널에는 현행규정에 따라 현지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사고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나, 1,000m미만인 중규모터널은 터널연장이 비교적 긴 데도 현지관리사무소가 없어 사고발생시 사고인지가 늦어 즉각 대응이 미흡한 점 등 사실상 방재 사각 지대에 있었다.
 - ※ 500m미만 짧은 터널은 환기가 원활하고 터널밖으로 탈출이 용이하다는 면에서 중규모터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 이번에 도입되는 원격관리시스템은 터널내에 차량속도 감지장치(Loop)와 CCTV를 설치하여 터널에서 차량속도가 정상이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징후 발생시 담당자 휴대폰 또는 관할사무소 컴퓨터에 경고음을 보내어 사고발생즉시 인지·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실용화될 경우, 사고발생 상황을 컴퓨터 동영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터널내 비상방송실시, 119출동요청등 재난시 가장중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가능하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년중에 총50억원을 들여 국도상 중규모터널 24개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시범적으로 터널1개소(국도43호선 진도치터널)를 선정, 운영해본 후 모니터링 및 보안을 통해 04.6부터 전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본격 시행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서구간(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에 대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지난 1994년부터 10여 년간 타당성 조사·기본·실시설계·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노선을 선정, 이번에 협의가 완료된 동서구간에 대해 2001년 12월부터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왔습니다.

그간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던 주요 사항 중 지하수위 저하문제는 터널통과 높이가 지표에서 50~200m 아래인 깊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표면 밑 토층수의 영향을 받는 식생 등 자연생태계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용출수가 충분할 경우 건천화된 도림천에 유하시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활용하고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해 오염가중도가 높은 적재중량 10톤 이상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제한(소형화물차, 일반버스 통행가능)하고 터널 입·출구 측에 전기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염된 배기가스를 정화하여 배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통후 5년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하수위, 대기질 및 소음, 진동 등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건설과정에서 환경단체가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여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그간 논란이 있어 왔던 서울대학교앞 관악IC 설치문제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에 따라 서울대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 안양천 제방을 따라 건설할 계획이던 강남순환도로 남북구간(안양천구간)은 2002년 실시한 대한토목학회의 지하화건의 안을 받아들여 2003년 3월부터 서부간선도로 바로 밑에 지하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남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선진 대도시 수준에 걸맞는 Network도로망이 갖추어져 서울과 외곽지역의 접근성, 강남의 동서간 교



통여 건 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천·구로 등 서부권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속도로 상습지정체 구간을 집중적으로 개선

- 건설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77개소에서 상습지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금년부터 연간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교통지정체 유형별로 선형개량, IC 확장 또는 입체화, 영업소차로수 증설 등을 집중 시행하여 단기간내에 이를 개선키로 하였다.
- 차로수 부족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동수원, 양재, 계양IC 등 25개소는 IC램프를 확장하거나, IC진출입부의 가감속차로를 연장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 서해안선의 광명시 소하IC, 남해선의 마산시 내서IC 등 2개IC는 신설하여 인근IC 교통을 분산처리하고,
 - 고속도로 IC 진출입부가 국도 등과 평면교차되어 교통지체가 심한 경부선 영동IC, 김천IC 등 9개 IC는 입체화나 교차 방식을 개선한다.
 - 그리고, 서울, 기흥, 대전 등 12개 영업소 등은 차로수를 확대하고, 본선용량이 부족한 평촌IC-학의분기점간, 조남분기점~서서울영업소간 등 6개구간은 차선을 추가 설치하여 교통처리 용량을 대폭 증대시킬 계획이다.
 - 또, 곡선반경이 불량하고, 오르막경사가 급한 호남선 장성IC~백양사IC 등 6개구간은 선형을 개량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고속도로 본선교통량이 용량을 초과하는 양재~기흥, 신갈~호법 등 17개구간(465km)은 단계적으로 4~8차로에서 6~10차로로 확장하며,
 - 이 중 강릉~동해(2→4차로)는 금년말에, 한남~반포, 언양~부산, 증약~옥천 등 3개구간(4→6차로)은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2005년까지 확장개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상습지정체구간 개선사업 세부추진내용

구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이후
완료구간	77	25	20	13	19

구분	개소	대상구간	완료 예정	사업비(억원)
계	77개소			76,090
IC 확장 및 가감속 차로 개선	25개소	동수원, 시흥, 청원, 서광주, 칠곡, 예천, 서안동, 영주, 남안동, 군산, 서평택, 진주Jct	'04	1,373
		평촌, 문막, 북대전, 군위, 의성, 안현Jct	'05	
		양재, 계양, 다부, 가산, 신천, 자유로, 서안산	'05이후	
IC 신설	2개소	내서IC	'04	218
		소하IC	'06	
IC 진입로 교차방식 개선	9개소	망상IC, 옥계IC, 서영천IC	'04	(확장 사업 예산에 포함)
		영동IC, 김천IC, 황간IC, 영천IC, 성산IC	'05	
		서공주IC	'08	
영업소 확장 및 기타	12개소	서울, 기흥, 대전, 신탄진, 달성, 문막휴게소, 김포대교	'04	206
		군자, 경안, 유성, 군위휴게소	'05	
		서김해	'06	
부가차로 설치	6개소	조남Jct→서서울TG	'04	374
		평촌IC→학의Jct, 안산Jct→금천IC	'05	
		안산Jct→서창Jct, 서창Jct→남동IC 북수원IC→동수원IC	'06	
선형개량	6개소	호남선 장성IC-백양사IC 간 4개소, 백양사IC-내장산IC 간 2개소	'06	968
본선확장	17개소	강릉-동해	'04	72,951
		한남-반포, 언양-부산, 증약-옥천	'05	
		동대구-경주, 옥포-성산	'06	
		성서-옥포, 양재-기흥, 신갈-호법, 진주-마산, 냉정-구포, 음성-호법, 대저-대동, 냉정-사상, 대동-양산 서평택-일직, 여주-만종	'07이후	

건교부, 선진국 수준의 건설교통 안전종합관리체계 확립

- 건교부는 작년 2월 대구지하철 사고이후 건설교통분야 안전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점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건설교통 안전종합대책」의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철, 항공, 도로 등 7개분야 239개 과제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분야별 사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30~60%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03 하반기에는 90개 과제를 착수하여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 지하철 내장재 일부교체, 도로절토사면 보강, 철도차량 비상안내표지 개선, 자동차 운행기록계 단속 등 18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2개 과제는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 시설·설비 개량 등을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04년에는 차량검수시설 보강, 버스운전기사 보호벽 설치 의무화 등 125개 과제를 신규로 착수하고, '05년에는 철도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지하철 터널구간 비상조명등 설치 등 24개 과제를 추진하여 건설교통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분야 중점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1. '03년 주요 추진실적

- 도로 비탈면, 터널 안전대책 수립
 - 전국 국도절토사면 12,650개소의 기본 D/B를 구축하였고, 도로의 비탈면설계시 안정성 분석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
 - 종전에는 높이 25m가 넘는 불안정사면에만 비탈면 안정분석을 하였으나, 이를 강화하여 모든 비탈사면에 실시
 - 붕괴징후가 예상되는 취약 절토 비탈면 대하여는 위험징후를 사전감지 할 수 있는 상시계측시스템을 설치
- (총 설치대상 100개소, 기설치 20개소, 잔여구간 '09년까지 완료)

- 터널 화재사고에 대비, 교통량이 많은 1km미만의 도심지 터널내에도 제연설비와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기준을 강화 하고, 관리사무소가 없어 사고대응에 취약했던 중규모 터널 (500m~1,000m미만)도 현지 사무소를 대신할 수 있는 원격관리 시스템 설치 방안을 연구중임

2. 기타 추진사항

- 최근 간헐적인 지진에 대비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 요령”을 마련, '04. 3월부터 안전진단에 활용
 -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90년 이전 시설물도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계획임
- 각종 재난·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발간, 전국 지방소속기관 및 시·도에 배포
 - 철도·항공·도로·수자원 등 분야별 재난·재해대책 조직, 사고보고체계, 긴급구조·구급체계와 사고수습 복구체계·개인별 행동요령 등 안전사고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3. '04년 계획

- 육상교통분야 (33개 과제)
 - 버스운전기사 보호안전격벽 설치 의무화 등
 - 버스 안전운전을 확보하도록 보호벽 설치 의무화 추진
- 도로분야 (9개 과제)
 - 절토사면 상시계측 시스템 구축 운영 등
 - 절토사면 위험징후 감지시 통행자에게 즉시 정보 제공

아시아하이웨이 일본·중국·인도·러시아 등과 연결

- UN(ESCAP) 주관하에 98년부터 추진된 {아시아 하이웨이 정부간 협정} 조인식이 금년 4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 Asian Highway는 아시아지역 국가간 교류확대를 위해 한·중·일·러·인도·이란 등 31개국을 연결하는 55개 노선 14만km로 구성되고
 - 우리나라는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국-인도-파키스탄-

- 이란-터키 등으로 이어지는 1번 노선(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하산)-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로 이어지는 6번 노선(AH6) 등 2개 노선이 통과된다
- AH1노선은 일본 도교를 출발하여 후쿠오카항을 거쳐 ferry노선으로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연결되며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여 평양, 중국 등과 이어지고,
- AH6노선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동해안 7번국도를 이용하여 원산, 러시아 등으로 이어진다
- 금년 4월 체결예정인 [아시안하이웨이 정부간 협정] 내용은 노선망, 설계기준, 절차, 효력 등이다.
- 이 협정이 체결되면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아시아 참여 각국은 협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정비를 하게되고 도로안내표지판에 노선번호(AH1, AH6)를 추가한다
- 우리나라는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국도7호선을 이용하게되므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구축되면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물적·인적 교류확대 및 남북간 도로망 연결로 교류협력 증진이 기대된다

- 서울-평양-중국(선양) : 7시간(620km), 강릉-원산-러시아(하산) : 10시간(914km) 소요예상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 조기 개방

한국도로공사는 3월 15일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를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된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는 오는 4월 1일 개통될 고속철도 운행에 맞추어 조기 개방하게 된 것이다.

광명역IC는 고속철도 광명역사로 진입하는 전용 인터체인지로 지난 1996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당시 '남서울역(광명역으로 명칭변경됨) 진출입로 개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1997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사업비 660억원의 수탁사업을 실시하여 준공된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광명역을 가고자 할 때에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광명역IC를,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광명IC로 벗어나면 된다.

